

신라인의 동물관(動物觀)과 불살생계(不殺生戒)

Silla People's View of Animals and the Commandments of Nonkilling

저자 (Authors)	나희라 Hee La Na
출처 (Source)	종교연구 79(2) , 2019.8, 69-97 (29 pages) Studies in Religion(The Journal of the Korean Association for the History of Religions) 79(2) , 2019.8, 69-97 (29 pages)
발행처 (Publisher)	한국종교학회 Korean Association For The History Of Religions
URL	http://www.dbpia.co.kr/journal/articleDetail?nodeId=NODE08765817
APA Style	나희라 (2019). 신라인의 동물관(動物觀)과 불살생계(不殺生戒). 종교연구 , 79(2), 69-97.
이용정보 (Accessed)	삼성현역사문화관 183.106.106.*** 2021/10/28 13:49 (KST)

저작권 안내

DBpia에서 제공되는 모든 저작물의 저작권은 원저작자에게 있으며, 누리미디어는 각 저작물의 내용을 보증하거나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그리고 DBpia에서 제공되는 저작물은 DBpia와 구독계약을 체결한 기관소속 이용자 혹은 해당 저작물의 개별 구매자가 비영리적으로만 이용할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이에 위반하여 DBpia에서 제공되는 저작물을 복제, 전송 등의 방법으로 무단 이용하는 경우 관련 법령에 따라 민, 형사상의 책임을 질 수 있습니다.

Copyright Information

Copyright of all literary works provided by DBpia belongs to the copyright holder(s) and Nurimedia does not guarantee contents of the literary work or assume responsibility for the same. In addition, the literary works provided by DBpia may only be used by the users affiliated to the institutions which executed a subscription agreement with DBpia or the individual purchasers of the literary work(s) for non-commercial purposes. Therefore, any person who illegally uses the literary works provided by DBpia by means of reproduction or transmission shall assume civil and criminal responsibility according to applicable laws and regulations.

신라인의 동물관(動物觀)과 불살생계(不殺生戒)*

나희라**

■ 국문요약

수렵채집시대 이래 오랫동안 동물은 인간의 중요한 파트너였다. 인간은 동물이 인간과 함께 세계를 구성하는 동등한 존재라고 여겼다. 그러나 농경과 가축 사육이 진전되면서 동물에 대한 인식도 달라졌다. 동물은 인간의 이익과 편의를 위해 사육되고 착취되며 마음대로 살해되어도 무방한 존재가 되었다.

그런데 모든 유정적 존재가 영혼을 가지고 있고 생명의 욕구와 고통을 느끼며 윤회를 통해 그 존재들이 서로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동물을 죽이고 먹어서는 안 된다는 불교의 가르침이 전해졌다. 이 가르침은 동물을 학대하거나 죽이고 먹으면 벌을 받는다는 인과응보담으로 만들어져 생생하게 일반인에게 전달되었다.

신라에서 살생하지 말라는 가르침과 관련한 이야기는 주로 사냥에서 동물을 살해한 경험으로 참회하고 깨달음을 얻어 출가를 했다는 승려들에 관한 것이다. 신라인이 불살생계를 접했을 때 가장 극적이며 폭력적인 동물 살해의 행위인 사냥을 문제로 삼았기 때문이었던 것 같다. 원광은 세속오계 가운데 인간과 동물 사이에서 벌어지는 살생의 문제를 ‘살생유택’이라 하여, 동물 살해는 시기와 대상을 가려서 신중하게 하라고 가르쳤다. 놀이로 행한 사냥은 ‘살생유택’의 가르침에 의하면 비판받아 마땅한 것이었다. 신

* 이 논문은 2018년도 경남과학기술대학교 대학회계 연구비 지원에 의하여 연구되었음.

** 경남과학기술대학교 교양학부 교수. E-mail: mythna@gntech.ac.kr

라인의 사냥 이야기 중 놀이삼아 사냥하는 것에 대한 비판적 이야기가 여럿 있는데 이러한 가르침과 무관하지 않다.

불교의 불살생계는 신라인에게 동물을 대하는 태도의 기준을 다시 마련해주는 것이었다. 이는 신라인의 생명윤리를 확장시켰으며, 이를 실천하는 것은 어떤 사람들에게는 이상적인 인간이 되기 위한 첫 걸음으로 여겨지게 하였다.

주제어 : 동물관(動物觀), 살생, 사냥, 인과응보담, 원광, 불살생계(不殺生戒)

I. 머리말

인간은 자연의 한 부분이며 생물의 일부로서 동물과 같은 범주에 속하지만 여타 동물과 차별되는 능력을 가지면서 스스로를 동물의 범주에서 분리시켜 구분해왔다. 인간에게 동물은 자기와 유사하면서 또 다른 존재였다. 그렇기 때문에 동물이라는 존재와 동물과 인간과의 관계는 인간이 세계를 인식하고 그 안에서 스스로의 정체성을 만들어 오는 데 중요한 문제였다 (Margo DeMello [2012]2018, 373-381; 장석만 2014, 30-31).

인간과 동물의 관계는 생명의 문제에서 가장 극적이다. 수렵채집 전통에서 동물과 인간은 상호신뢰 관계였다. 동물과 인간은 환경과 그 자원을 공유했고, 인간이 사냥하는 동물은 인간과 동등하게 여겨졌다. 동물은 인간 생명의 원천이었으므로 사냥감이 되는 동물과 그 죽음은 귀중하게 다루어져야 했다. 동등한 관계로서의 동물은 함께 세계를 구성하고 사회를 구성하는 존재로 생각되었다(마고 드멜로 [2012]2018, 125).

수렵시대의 인간과 동물의 동등한 관계를 근본적으로 바꾸어 놓은 것은 작물 재배와 함께 시작한 동물의 가축화였다. 농경과 가축화는 식량을 수집하는 데서 생산을 하는 방식으로의 변화였고, 이는 인간이 동물과 식물을 포함한 자연을 대하는 태도와 사고방식을 바꾸도록 하였다. 수집단계에서 인간은 자연과 동등하며 긴밀히 상호작용하는 관계였으나, 식물을 작물화하고 동물을 가축화하면서 인간은 자연에 적극적으로 개입하여 그것을 통제하고 조작할 수 있는 힘을 경험하게 되었다. 그리하여 농경사회에서는 인간이 동물을 지배한다는, 동물과 인간에 대한 새로운 개념이 생겨나게 되었다. 인간이 동물보다 우월하다는 생각과 태도는 기술문명이 발전할수록 점점 확고해져갔고, 인간은 점점 더 동물을 폭력적으로 착취하였다.¹⁾ 인간은

1) 서양에서는 피타고라스나 성 프란체스코가 동물의 복지에 관심을 가지긴 했어도 다윈의 진화론 이전의 동물관은 기독교적 전통과 아리스토텔레스로부터 칸트에 이르기까지 오직 인간의 생명만이 신성하고 존중받아야 하며 동물은 인간을 위해 존재한다는 생각을 발전시켰다(Peter Singer [1975]2012, 319-358). 인도의 자이나교와 불교의 전통은 조금 다른 입장이었지만, 중국의 유가는 인간중심주의적 입장을 분명히 했다. 희생 동물인 양을 불쌍히 여기는 것보다 예를 지켜 제사를 하는 것이 옳다고 하고(『論語』 八佾), 마구간에 불이 나자 말의 안위는 묻지 않고 사람의 피해만 물었다는 공자의 언설은 이를 분명히 대변한다(『論語』 季康).

동물을 그 자체 생명으로 존중하지 않고 인간의 생존을 위한 자원과 수단으로만 취급해왔다. 현대 산업기술이 만들어낸 공장식 축산업은 그 결정체이다. 이러한 상황에서는 동물이 더 이상 인간과 같은 범주의 생명체가 아닌 것으로 취급받는다.

그러나 한편으로 19세기 이래 유전학, 인류학, 신경심리학, 사회생물학, 행동학 분야의 새로운 발견을 통해 인간이 동물과 얼마나 가까운 존재인가 다시 확인되고 있다(마고 드멜로 [2012]2018, 64). 그리고 공장식 축산업과 대량의 육식이 인간의 생존에 치명적일 수 있다는 경고는(Peter Singer [1975]2012) 인간을 동물과 분리하여 동물의 생명을 함부로 취급하는 것이 인간의 생존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가를 확인해주고 있다. 이런 점에서 인간이 동물과 어떤 관계를 맺었는지, 인간이 동물을 어떻게 생각하고 다루었는지를 살펴보는 것은 중요하다. 이는 인간의 역사와 문화를 이해하는 하나의 관점이기도 하지만, 보다 중요하게는 세계 안에서 인간 존재의 위치를 다시 설정할 필요가 있는 현재에 우리의 미래를 가늠하게 하는 중요한 자료를 제공해줄 수 있기 때문이다.

그렇다면 한국인의 동물에 대한 생각과 태도는 어떠했을까. 한국인의 동물관을 커다란 맥락으로써 살펴보는 데에는 한국의 역사와 문화의 기초를 놓았던 신라인의 동물관에서 출발하는 것이 적절하다. 선사시대 이래의 오랜 전통적 동물관은 신라인의 동물관의 바탕을 이루고 있었다. 그러나 농경생산의 발전을 비롯한 사회의 복잡화와 문명의 발전 단계에 따라 동물을 대하는 사고방식과 태도도 달라졌다. 어떤 변화이든 그것을 경험하는 사람은 변화의 내용이나 본질을 정리하고 설명하고 싶은 욕구를 가진다. 여기에 유교나 불교와 같이 인간과 세계에 대한 잘 갖추어진 설명체계가 들어와 신라인은 복잡해진 동물에 대한 태도와 감정에 대해 다양하고 깊이 있는 정리를 할 수 있는 계기를 갖게 되었다. 특히 불교의 윤회설과 불살생관(不殺生觀)은 동물과의 관계 설정과 동물에 대한 태도에 중요한 관점을 제공해주었다. 그러므로 이 글에서는 신라사회의 전통적 동물관과 아울러 불교 수용 이후 불살생관이 신라사회에서 어떻게 설명되었는지를 살펴봄으로써 신라인의 동물관과 그 변화를 이해해보려고 한다.

사람들이 동물에 대해 어떠한 생각과 태도를 가지고 있었고 그것이 삶

속에서 어떻게 표현되었는가를 살펴보기 위해서는 여러 방면의 자료를 수집하고 적절히 해석하는 작업이 필요하다. 정사(正史) 기록과 설화 자료 등 문헌 자료뿐 아니라 고고미술 분야의 물질 자료 등이 기본적인 자료가 될 것인데, 이 글에서는 이야기 자료에 보다 초점을 맞추려고 한다. 설화는 여러 사람들의 생각과 태도가 모아져서 형성되고 전승된 것으로, 한 시대의 대다수 사람들이 어떠한 세계관을 가지고 살았는가를 말해주는 요긴한 자료이기 때문이다(임재해 2000). 그런데 신라인이 남긴 동물 관련 이야기 자료는 당대의 중국이나 일본과 비교하면 무척 빈약하다. 7세기 이후 당, 신라, 일본은 정치와 문화의 여러 부분에서 표면적으로 유사한 지향점을 추구하고 있었다. 불교를 받아들여 사회의 운영과 개인 삶의 실천 원리로 적용하는 것은 이 시기 동아시아 삼국 모두에게 중요한 문제였다. 그런데 불교는 동아시아 삼국과는 다른 이질적 문화권에서 전래된 것이었다. 때문에 불교를 수용하는 과정에서 중국인과 일본인이 불교의 가르침을 자신들의 세계관의 한 부분으로 받아들이기 위해 기울인 노력은 신라인의 경우를 살피는데에 참고할 만한 점이 많다고 생각한다. 그러므로 중국이나 일본의 이야기 자료를 아울러 검토하면서 불교 수용 이후 신라인의 동물관을 유추하는 보충적 방법도 시도해보았다.

II. 고대인의 동물에 대한 이해와 태도

고대인의 동물관은 세계 인식과 자신의 위치 설정을 설명하고 있는 신화에서 잘 드러난다. 하늘에서 내려온 천신 환웅과 지상의 동물인 곰 사이에서 탄생한 신성한 아이가 조선을 건국했다는 단군신화의 이야기는 여러 세계가 소통하고 조화하며 신성을 드러냄으로써 이상적인 세계가 완성될 수 있다고 믿었던 고대인의 세계관에 기반 한 것이다(나희라 2000, 206). 여기서 동물은 세계를 이루는 중요한 구성원이며 인간을 탄생시키는 생명의 원천으로 그려졌다. 이러한 생각은 신라의 건국신화에서도 비슷하게 나타난다. 시조왕 혁거세의 탄생은 흰 말의 등장과 그 유도로 이루어졌으며, 동물들의 호위와 축하를 받으며 인간 세상에 신성함을 드러냈다. 알영, 알지, 탈해 등

신라의 신성한 조상들도 모두 닭, 용, 까치 등 동물과의 관계 속에서 등장하였다. 그래서 동물의 이상한 출현이나 행동은 유심히 관찰되고 기록되어야 하며 그 의미는 면밀히 해석되어야 하는 일이었다(나희라 2017).

한편으로는 그렇기 때문에 동물은 존중되면서도 살해당했다. 동물은 인간의 영역과 신성한 영역 양쪽에 걸쳐 있으며 또 그 둘을 가로지르기 때문에 여러 의례에서 희생이 되었다(마고 드멜로 [2012]2018, 415). 신라인은 소와 말을 살해하는 희생례를 통해 하늘과 소통하려 했으며(신종원 1990), 장례 등의 여러 의례에서 말과 소, 개, 닭, 돼지 등을 살해하였다(이준정 2012; 장윤정 2013).

살해당하는 동물과 인간의 관계를 잘 보여주는 것이 사냥이다. 사냥은 인간과 동물이 생명을 주고받는 활동으로, ‘신비로운 연대감’을 불러일으킨다. 사냥되어 죽은 동물은 육체를 인간에게 주고 영혼이 동물의 세계로 돌아가는 것이므로 인간은 정중한 태도로 사냥하고 동물의 육체를 잘 다루어야 한다. 동물을 사냥하고, 그 고기를 먹고, 남은 것을 처리하는 전 과정에서 인간은 미안하고 감사하는 마음으로 정중히 대접하는 의례를 치러야 한다. 그래야지 동물의 세계에 인간의 뜻이 잘 전달되어 다음에도 동물이 인간세계로 내려와 사냥감이 될 수 있다. 그렇지 않으면 동물이 화를 낼 것이며, 특히 막강한 힘을 가진 동물세계의 주인으로부터 벌을 받을 수 있다. 이러한 생각은 많은 수렵사회의 사람들에게서 볼 수 있는 것이다(Uno Harva [1938]2014, 405-442; 中澤新一 [1950]2003, 97-117; Hans-Joachim Paproth [1976]2007). 동물세계의 주인은 동물의 소유자이며 보호자로서 인간에게 사냥감을 주는 것도 이들과 여겨졌다(서영대 1992, 74; 우노 하르바 [1938]2014, 385-388). 인간과 유사하면서 강력한 힘을 가진 곰은 동서양을 막론하고 동물세계의 주인의 역할을 하는 경우가 많았는데(이정재 1997; Michel Pastoureaux [2007]2014), 만주 일대에서도 곰과 호랑이 등이 동물의 주인이며 산신으로 여겨졌다(서영대 1992, 70; 이정재 1997). 신라인은 산신을 제사하는 것을 좋아했다고 하는데(『舊唐書』卷199上 列傳第149上 東夷新羅), 산신은 동물의 주(主)로서 수렵신으로서의 면모를 가지고 있다(서영대 1992, 69-75). 김대성이 죽인 토함산의 곰은 김대성을 나무라는 동물의 주인자 토함산의 산신이었으며,²⁾ 뒤에 보겠지만 정체가 여우인 삼기산신은 원광을

2) 신라의 전승에 의하면 석씨 시조인 탈해가 죽어서 토함산의 산신이 되었다고 한다(『三國遺事』卷第1 紀異第1 第四脫解王). 원래 토함산의 산신은 곰과 같은 동물에서 출발한 動物態로서의

훈련시켜 완성된 인간으로 만들었다.

이러한 동물관은 수렵채집시대 이래의 오래된 관념의 흔적이다. 전통적 동물관에서는 동물이 인간과 동등하게 세계를 구성하고 신성한 세계와 인간 세계를 중재한다고 보았기 때문에 동물을 인간의 상징 질서에 편입시켜 인간의 행동, 욕망, 꿈을 표현하는 데 이용했다(마고 드멜로 [2012]2018, 381). 신라인은 자신들의 건국 이야기에 동물을 등장시키고, 자신들의 삶에 중요한 영향을 미치는 신을 상상하는 데 동물을 개입시키고, 동물의 행동을 유심히 관찰하여 인간사의 중요한 사건을 이해하려고 하였다. 무덤 안에 부장된 토기에 동물들을 부착하고 무덤 주위에 동물의 모습을 새겨 넣어 죽은 자의 세계와 산 자의 세계의 관계를 중개하도록 하였다. 동물은 신라인의 삶에 중요한 상징으로서 깊숙이 개입하고 있었던 것이다.

그런데 신라시대에는 이미 작물 재배와 가축 사육이 기본 생산활동이었기 때문에, 전통적 동물관이 유지되었다 하더라도 실제 생활에서 동물은 지배의 대상이었으며 인간의 생활을 위해 여러모로 이용되는 존재였다. 오직 인간만이 존귀하여 인간은 동물을 수단으로 다루고 그 생명을 인간을 위해 사용해도 된다고 한 공자의 말은 이러한 입장을 잘 말해준다. 가축은 인간을 위해 평생 힘든 노역에 시달렸다. 소와 말은 사람 대신 논밭을 갈도록 부려졌고 사람을 태우거나 짐을 나르며 전쟁에 동원되어 죽어가야 했다. 평생 일하고 죽으면 그 고기는 다시 사람들에게 먹혔다. 가축은 매대·증여·교환·재산분할의 대상으로서 인간과 같은 생명을 가진 존재로 여겨지지 않았다. 사냥은 여전히 생산 활동의 하나였지만, 동물의 생명을 얻기 위한 조심스러운 행위가 아닌 살해의 기술을 훈련하는 군사훈련의 일환으로, 나아가 놀이로 행해지기도 했다. 귀족들은 목장을 소유하고 있었으며 필요하면 언제든지 동물을 활로 쏘아 잡아먹었다(『新唐書』 卷220 列傳第145 東夷 新羅).

이렇듯 신라인에게 동물은 종교적 믿음과 의례 차원에서는 신성성의 상징이기도 했지만, 현실적으로는 사냥과 사역의 대상으로서 인간의 편의와

산신도 있었지만, 김유신이 대관령산신이 되었다고 믿어진 것처럼 토함산과 연관이 있는 특정 혈족집단의 시조가 人物態로서의 산신으로 모셔지는 경우도 있었던 것 같다. 어떤 신령스러운 산의 산신이 반드시 하나일 필요는 없을 것이다. 신앙집단의 정체성에 따라 산신의 성격이 달리 파악될 수도 있고, 지배층의 정치사회적 관점과 일반민의 생업경제적 관점에서 산신의 양태와 특성이 달리 표현될 수도 있다.

이익을 위해 살해당하고 착취되는 존재였다. 동물과 인간의 관계에 지배와 피지배의 관계가 설정된 문명사회에서는 어디나 그러했다. 동물의 고통은 외면되었고 동물은 인간의 풍요로운 생활에 이용할 자원으로 여겨졌다. 그런데 모든 살아있는 것들의 생명을 중시하라고 가르치는 불교가 들어오면서 변화의 조짐이 일기 시작했다.

Ⅲ. 불교의 동물관과 불살생계

한국인에게 영향을 준 여러 종교와 사상 중에서 불교만큼 동물의 생명에 대해 관심을 보인 것은 없다. 유교의 동물관은 간혹 살해되는 동물에 대해 연민을 표현하기는 했으나 기본적으로 인간이 이 세상에서 가장 귀한 존재이기 때문에 인간의 생존을 위해 동물 살해는 자연스러운 것이라는 입장이었다.³⁾ 그러나 불교는 인간의 생명만이 존중받아야 할 것이라 보지 않는다. 인간과 동물뿐 아니라 곤충에 이르기까지, 모든 유정적 존재는 신령스러운 지혜[靈智]를 가지고 있으며 죽음과 고통과 공포를 느낄 수 있어서 고통을 피하고 편안함을 구하려는 존재라고 본다.⁴⁾ 그러므로 “이 이치를 자기의 몸에 전주어 남을 죽이거나 죽게 하지 말라”고 가르쳤다(『法句經』 第18 14章 刀杖品). 여기에 더하여 인간과 동물은 업과 윤회에 의해 생명의 연속적 상태에 있기 때문에 저 동물이 내 부모나 친구일 수 있으므로 동물을 죽이는 것은

3) 예를 들면 맹자의 다음과 같은 언급은 동물에 대한 연민을 표현하고 있다. “君子之於禽獸也，見其生，不忍見其死，聞其聲，不忍食其肉。是以君子遠庖廚也。”(『孟子』 梁惠王上) 그러나 유가의 기본적인 동물관은 다음과 같다. “水火有氣而無生，草木有生而無知，禽獸有知而無義，人有氣有生有知亦有義，故最爲天下貴也。”(『荀子』 王制) 도교 역시 마찬가지로의 입장에 있다. “人與物類皆稟一元之氣，而得生成。生成長養，最尊最貴者，莫過人之氣也。”(『雲笈七籤』 卷56 諸家氣法部一元氣論并序)

4) “夫含生稟氣，皆有靈智。蠢動翺翔，咸知畏死。”(『法苑珠林』 卷第64 慈悲篇第74 述意部) 여기서 동물이 ‘신령스러운 지혜[靈智]’를 가지고 있다는 것은 서양 전통에서 동물이 영혼을 가지고 있지 않으므로 언어를 사용하지 못하고 이성적 사고 능력이 없다고 생각했다는 것과 비교된다. 서양 전통에서는 인간에게만 영혼이 있고 다른 생명체는 영혼이 없으므로 동물은 인간과 같은 존재가 아니며 따라서 인간의 도구로 이용될 수 있다는 입장이 강했다(피터 싱어 [1975]2012, 340-341). 그러나 불교에서는 동물이 영혼을 가지고 있으며 쾌락과 고통을 느끼며 인지능력을 가지고 있다는 입장이었다. “夫稟斯六趣，莫不戀戀而貪生，受質二儀，並皆區區而畏死。雖復昇沈萬品，愚智千端，至於避苦求安，此情何異。”(『法苑珠林』 卷第73 十惡篇第84 殺生部第4 述意部第一)

이들을 죽이는 것이며(안옥선 2004, 244-246), 또 일체 중생이 불성(佛性)을 가지고 있으므로 동물을 죽이는 것은 부처를 죽이는 것이라고 하였다.⁵⁾ 그래서 동물을 먹는 것도 금지되었다. 초기불교에서는 선택적 육식이 허용되기도 했으나, 대승불교에 와서 육식은 살생을 낳기 때문에, 그리고 부모와 친구를 먹는 것이기도 하므로 철저히 금지되었다(Peter Harvey [2000]2010, 295-307; 남궁선 2011; 고영섭 2009).

자비를 표방하는 불교에서 가장 중요한 실천 덕목으로 내세워진 것은 불살생이었다. 신라인도 불교를 불살생의 가르침으로 받아들였다. 법흥왕은 불교를 공인하고 바로 다음에 살생을 금지하라는 명령을 내렸다(『三國史記』卷第4 新羅本紀第4 法興王 15年, 16年). 이는 중국 양무제, 백제 법왕, 일본 천무천황이 그러했듯이 불교의 가르침을 실천하는 것은 살생을 하지 않는 것이라는 것을 공식적으로 선포한 것이다(『廣弘明集』26卷 慈濟篇 叙梁武帝殺絕宗廟犧牲事; 『三國史記』卷第27 百濟本紀第5 法王 元年 冬12月; 『日本書紀』卷第29 天武天皇 4月).

이러한 불살생의 계율이 일반 사람들의 생활에 어떻게 영향을 주었을까. 이를 위해서는 불교의 가르침이 어떻게 일반인에게 이야기되고 침투하는 것이 가능했는가를 알려주는 불교의 인과응보담과 그것을 모아 편찬한 설화집의 해설을 살펴보는 것이 적절하다(池上良正 2003, 53).⁶⁾ 중국과 일본에 남아있는 신라와 동시기의 많은 인과응보담 중에서 특히 불살생의 계율을 어긴 사람들이 받았던 악보(惡報)의 참혹함을 이야기한 것들이 많다.⁷⁾ 불교

5) 『梵網經』48輕戒 第20戒와 『涅槃經』 등에서 이를 설명하고 있다. 道端良秀 1979, 228-230.

6) 중국과 일본에서는 불교의 가르침을 일반인에게 전달하기 위해 많은 영험담과 인과응보담이 만들어져 유포되었고, 또 설교를 위한 자료집으로도 이용할 수 있도록 이러한 이야기들을 모은 설화집들이 편찬되었다. 중국에서는 남북조시기부터 당대에 걸쳐 『冥祥記』, 『冥報記』와 같은 인과응보담을 모은 설화집과 『金剛般若靈驗記』, 『金剛般若經集驗記』, 『弘贊法華傳』, 『地藏菩薩像靈驗記』와 같은 각종 感應傳이나 靈驗傳이 편찬되었다. 또한 7세기 후반 道世에 의해 불교 종합백과사전으로 편찬된 『法苑珠林』에는 각 항목마다 증험이 될 만한 이야기들을 이미 편찬된 설화집에서 뽑아 대거 수록하였다. 이 영향을 받아 일본에서도 『日本靈異記』, 『今昔物語集』과 같은 설화집들이 편찬되었다. 이에 대해서는 나희라 2008 참조.

7) 불교는 불살생을 제일계율로 하고 있는 만큼 『法苑珠林』의 각 편에 걸쳐 살생으로 惡報를 받은 많은 感應緣들을 소개하고 있다. 『日本靈異記』에도 上卷 11話에 그물로 물고기를 잡았다가 불에 타죽는 現報를 받은 사람의 이야기, 16話에 살아 있는 토끼의 가죽을 벗긴 사람이 현보를 받아 고통스럽게 죽은 이야기, 21話에 말에게 지나치게 많은 짐을 지우고 다 이용하고 죽인 사람이 악보를 받은 이야기, 中卷 5話에 漢神에게 제사 지내면서 7년 동안 7마리의 소를 죽인 사람이 명부에 가서 그가 죽인 소들에 의해 고통당한 이야기, 10話에 새알을 구워먹은 사람이 불타는 보리밭에서 죽은 이야기 등이 다양하게 나온다.

제일의 가르침이자 계율이었던 불살생의 원칙이 일반인의 실제 삶에 적극 침투하고자 했던 것을 짐작할 수 있다.

『법원주림』 가운데 살생의 죄악을 설명하는 부분에서 편찬자 도세(道世)는 당시 중국인이 저지르는 살생은 봉제사(奉祭祀)·접빈객(接賓客)·수렵·군사(軍事)라는 네 범주의 행위에서 주로 이루어지고 있다고 보았다(『法苑珠林』 卷第73 十惡篇第84 殺生部第4 述意部第一). 봉제사·접빈객의 살생을 죄악이라 규정 한 것은 자신들의 전통적 생활윤리에 불살생의 계율을 어떻게 적용할 것인가라는 문제를 제기한 것이다. 국가제사를 담당했던 고위 관리가 명부에 끌려가 돼지와 양 등 희생동물들과 대질하여 살생의 죄를 심판받는다든 이야기기는 이 문제가 적용된 것이다(『金剛般若經集驗記』 第1卷 延壽篇 第2 大廟署丞 李思一). 사신이나 손님 접대를 위해 베푼 연회에서 동물의 고기를 제공한 것으로 명부에서 그 죄를 심판받는 관리의 이야기 역시 그러하다. 사후 명부에서 살생의 죄를 추궁 받은 공각(孔恪)이란 사람은 자신이 생전에 관리로 일하면서 사신을 대접하고 손님을 대접하느라 소와 오리를 죽인 것뿐이며 이는 나라 일을 하였던 것이므로 죄가 되지 않는다고 항변하였다. 그러나 명부 관리는 그것은 자신의 명예와 보상을 기대하여 한 것이니 나라 일이라 할 수 없다고 판정하였다(『法苑珠林』 卷第71 罪福篇 感應緣).⁸⁾ 이러한 이야기들은 공적인 업무 집행으로 또는 상부의 명령으로 했다 해도 살생은 죄가 된다고 가르치는 이야기이다. 이는 불교가 개개인의 자각과 실천을 중시하는 종교임을 잘 말해주는 것이다. 어떤 사람이 죽은 후 다른 사람이 양을 죽여 그를 위해 제사를 지내 주었기 때문에 그가 지옥벌을 받고 있다는 이야기는(『冥報記』 卷中 10話) 중국인이 전통적으로 중시해온 조상제사에서의 살생도 동물의 생명을 빼앗는 죄악임을 분명히 전하고 있다.⁹⁾ 일본에도 다음과 같은 이야기가 있다. 어떤 사람이 한신(漢神)을 제사하느라 7년 동안 7마리의 소를 죽인 후 이를 뉘우치고

8) 불살생의 계율을 공적인 영역에 적용할 때 생기는 문제를 사적 이익 추구라는 동기의 문제로 설명한 것이다. 뿐만 아니라 공각은 여기에 더하여 계란 6개를 삶아 먹은 일로도 죄를 받았다. 중국인의 일상적인 삶에서, 나아가 고위 관리로서의 삶에서 불살생의 계율을 어떻게 적용할 것인가의 고민이 잘 반영된 이야기이다.

9) 중국에서 제사시의 동물 살해는 인도에서와 마찬가지로 불교도들에게 불살생의 교리를 강조해야 할 심각한 문제로 여겨졌던 것 같다. 양무제는 사냥을 금지할 것뿐만 아니라 조상에게 제사를 할 때에도 살생을 하지 말라고 명령을 내렸었다. 피터 하비 [2000]2010, 296-297 참조.

방생을 하고 죽었다. 명부에서 그의 죄를 심판하는데, 그에게 죽임을 당한 소들이 그를 고소하여 그의 처벌을 주장하였다. 이에 그가 생전에 방생한 다수의 동물들이 변호인단이 되어 그의 살생은 그가 믿었던 귀신을 제사하기 위한 것이었을 뿐이므로 그의 잘못이 아니라고 옹호하였다. 이러한 논쟁 끝에 염라왕이 변호인단의 편을 들어주어 그는 소생할 수 있었다고 한다(『日本靈異記』中卷 5話 依漢神崇殺牛而祭又修方生善以現得善惡報緣).

육식을 해서 현보(現報)를 받거나 죽어서 지옥에 떨어진다는 인과응보담도 중국과 일본의 설화집에 많이 실려 있다. 육식은 살생을 낳기 때문에 불살생의 계율을 지키는 것은 곧 불식육을 지켜야 하는 것이라고 하였다(道端良秀 1979, 272-291).

또 불살생의 계율을 적용하는 데 생명의 범주를 어디까지로 볼 것인가를 설명하는 이야기도 있다. 계란을 먹어서 벌을 받은 사람의 이야기,¹⁰⁾ 곤충을 죽여 벌을 받은 사람의 이야기는(『法苑珠林』卷第73 十惡篇 殺生部 引證部 感應緣 唐時果毅孝政蜂驗) 사소하여 무시하기 쉬운 것에 대해서도 ‘모든 중생의 생명은 존중되어야 하며 살해해서는 안 된다’는 불교 생명관의 대원칙을 확인시키는 것이었다. 『일본영이기』의 편찬자인 경계(景戒)는 새알을 먹어서 현보로 죽은 사람의 이야기를 해설하면서 『열반경』을 인용하여 이 이야기는 사람과 짐승이 준비의 차별은 있으나 생명을 중시하는 것은 다르지 않음을 증명하는 것이라고 하였다(『日本靈異記』中卷 10話 常鳥卵煮食以現報得惡死報緣).

살생과 관련한 인과응보담 가운데 앞에서 본 일본의 이야기처럼 인간에게 죽임을 당한 동물들이 명부에서 자신을 죽인 인간을 고발하여 그 죄악을 드러내고 벌을 받도록 한다는 이야기들이 여럿 있다.¹¹⁾ 비록 죽어서이

10) 계란을 생명으로 볼 것인가에 대한 의문은 지금도 그렇지만 당대 중국인들에게도 풀기 어려운 문제였을 것이다. 승려 支遁은 계란이 아직 생명이 없으므로 먹어도 죄가 없다 했으나, 계란이 생명이 있음을 보여주는 이상한 일이 있고 나서는 평생 계란을 먹지 않고 채식을 했다는 이야기는(『釋門自鏡錄』卷下 害物傷慈錄八, 支遁道林) 불교 측에서 계란의 문제를 어떻게 정리했는지를 보여준다. 그리고는 일반인들의 다음과 같은 이야기를 통해 계란을 먹는 것은 분명 불살생과 불식육의 계율을 어기는 惡業이라고 가르쳤다. 계란을 좋아해서 지옥에 떨어진 周武帝 이야기(『冥報記』卷下 4話), 계란을 먹고 현보를 받은 어린 아이의 이야기(『法苑珠林』卷第69 漁獵篇 引證部 感應緣, 隋冀州外邑有小兒燒雞卵食現報) 등이 그러하고, 심지어는 머리 감을 때 계란 흰자위를 사용하여 벌을 받은 이야기도(『法苑珠林』卷第73 十惡篇 殺生部 引證部 感應緣, 梁時有人沐髮用雞卵白驗) 있다.

11) 『冥報記』下卷 12話는 죽임을 당한 당나귀가 자기를 죽인 사람을 명부에 고소하였다는 이야기가

지만 동물에게 자신의 생명을 빼앗은 사람을 고발할 수 있는 권리를 주었다. 동물을 인간과 마찬가지로 주체적 생명권을 가진 존재로 본 것이다. 동물을 죽여 먹는 것은 동물의 영혼을 원래의 동물의 세계로 보내는 것이고 살해자인 인간이 살해된 동물들에게 좋은 평판을 얻어 이후에도 동물들을 안전하게 사냥하려면 죽이고 먹는 데에 동물에 대한 존중과 경외를 표현해야 한다는 수렵시대 동물관의 기본정신과 다르지 않다.

인간과 가장 친근한 동물 부류인 가축에 대해서 불교는 그 고통의 문제까지 배려한다. 가축은 인간에게 심하게 혹사당하며 인간의 마음대로 그 생사가 좌우되었던 동물이다. 고대의 가축은 현대의 공장형 농장의 가축이나 실험동물에 비하면¹²⁾ 인간의 곁에서 살아 움직이고 고통을 표현하였기 때문에 인간의 연민과 동정심을 자주 불러일으키는 존재였다. 따라서 가축은 불교에서 가르치는 생명에 대한 자비를 시험하기 좋은 대상이었다. 불교는 가축을 포함한 모든 동물에 대한 자비를 말한다. 따라서 가축에 대해 살해하지 말 것은 물론 자비로운 태도로 대하고 심하게 다루지 말라고 가르쳤다. 당대 중국과 일본에서 가축을 심하게 대하거나 살해하여 악보를 받았다는 이야기들이 만들어져 유포된 것은 바로 이러한 가르침을 전달하려는 것이었다. 『일본영이기』에는 말에게 지나치게 많은 짐을 지우고 다 이용하고 죽인 자비심 없는 사람이 끓는 물에 자신의 두 눈이 삶아지는 현보를 받았다는 이야기가 실려 있다. 편찬자 경계는 이야기의 마지막에 축생은 과거에 나의 부모였을 수 있으므로 자비로 대해야 한다고 논평하였다(『日本靈異記』上卷 21話 無慈心而馬負重馱以現報得惡報緣). 한편 물건을 훔친 사람은 소로 다시 태어나 평생토록 심한 노역으로 고통을 받는다는 이야기들도 있다(『日本靈異記』上卷 10話 偷用子物作牛役之示異表緣; 中卷 32話 服用寺息利酒不償死作牛役之償債緣 등). 가축을 고

다. 앞에서 본 李思一의 이야기에서 이사일은 명부에 끌려가 희생동물들과 대질하여 그 죄를 심판받았다. 일본의 한 승려도 자신이 잡아 죽인 수 백 마리의 물고기들에 의해 고발되었다(石田瑞曆 2013, 170-171).

- 12) 공장형 농장 가축이나 실험실 동물은 격리된 폐쇄 공간에 갇혀 고통을 받으며 겨우 생존하기 때문에, 대부분의 사람들이 그들의 비윤리적 상태와 고통의 실상을 알 수 없다. 사람들은 다만 잘 포장된 그들의 고기와 부산물을 손에 넣거나, 그들의 희생으로 만들어진, 인간에게 유익한 약이나 생활필수품 등을 얻을 뿐이다. 현대의 동물 관련 산업은 인간을 동물의 고통으로부터 더욱 멀어지게 하고 있다. 현대사회에서 인간의 동물에 대한 지배와 폭력의 실상에 대해서는 피터 싱어 [1975]2012와 Marc Bekoff [2010]2011 참조.

통스럽게 부리는 인간의 행위를 윤회론을 가지고 합리화한 것인데, 그러면 서도 “집에 소와 말, 개 등이 오게 되면 그들은 대개 전세의 인연이 있는 자이므로 심하게 때리거나 혹사시키지 말라”고 하여(『今昔物語集』卷第12 伊賀國人母生牛來子家語第二十五) 가축의 고통에 관심을 기울이라고 하고 있다.

이렇듯 불교의 생명관이 일상생활에 적용된 다양한 이야기들이 만들어져 유포됨으로써 불교의 불살생의 원칙은 다양한 계층에서 확인되고 또 확산될 수 있었다.¹³⁾

IV. ‘살생유택(殺生有擇)’, 해석과 적용

신라에서는 어떠했을까. 법흥왕이 불교를 공인하고 바로 살생을 금지하라는 명령을 내렸듯이 신라인도 불교의 본질은 불살생에 있다고 생각했다. 살생이 난무했던 통일 전쟁이 마무리된 후 “오계(五戒)로 세상에 응하고 십선(十善)으로 백성을 다스려 통치를 안정하고 공을 이루었다”고 하여(『皇福寺石塔金銅舍利函誌記) 중대 왕실은 불살생이 제일계율인 보살오계를 세상을 살아가는 주요 지침이라 내세웠다. 성덕왕은 705년과 711년 두 번에 걸쳐 살생을 금하는 명령을 내렸다(『三國史記』卷第8 新羅本紀第8 聖德王 4年 9月; 10年 夏5月).

공식적인 표명 외에 일반인들에게 불살생의 계율이 알려지고 확산되는 데에는 중국과 일본에서와 같이 불교의 가르침을 ‘지금, 여기에서’ 벌여지는 일로 생생하게 전달하는 이야기들이 필요했다. 신라에서도 불살생의 계율을 홍보하는 인과응보담이 만들어져 유포되었을 것이다. 그러나 살생이나 육식을 하여 악보를 받았다는 신라인의 인과응보담으로 전해지고 있는

13) 반면 유교적 관점에서 세계를 보는 사람들은 살해하고 살해당하는 일에 善惡이 있지 않으며 인간이 생활하는 데 필요한 것을 얻기 위해 동물을 살해하고 먹는 것은 자연스러운 일이라고 불교의 불살생의 원칙을 비판하기도 하였다. 晉宋 연간의 何承天이라는 사람은 인간의 숭고한 지위에 관하여 유가가 가지고 있는 가치를 지키면서 ‘衆生說을 배격하고 오직 인간만이 고귀하다고 보았다. 이러한 입장에서 불교의 불살생에 대해 인간이 생활하는 데 그 소용에 따라 동물을 살생하는 것은 당연한 것이므로 악보를 받는다는 불교의 가르침은 편견이라고 하였다(何承天『報應問』, 『廣弘明集』第18卷 法義篇). 13세기 고려의 이규보 역시 잡히고 먹히는 것에 善惡이 있지 않으니 잡아먹는 동물이라고 하여 미워하거나 먹히는 동물이라고 불쌍히 여길 까닭이 없다고 하였다. 이에 대해서는 이택동 2013 참조.

것은 김대성 이야기 외에는 없다.¹⁴⁾

『삼국유사』 등에 남아 있는 신라인의 불살생 가르침과 관련한 이야기는 주로 사냥에서의 살생 행위를 참회하고 출가한 승려들의 이야기이다. 자장은 어려서부터 살생을 좋아해서 매를 놓아 꿩을 잡다가 그 꿩이 눈물을 흘리는 것을 보고 느낀 바 있어 출가를 했다고 한다(『皇龍寺九層木塔刹柱本記』). 혜통은 자기가 죽인 수달이 죽어서도 그 뼈만 가지고 새끼들을 품고 있는 것을 보고 속세를 버리고 출가를 했다고 하였고(『三國遺事』 卷第5 神呪第6 惠通降龍), 진표도 사냥을 하다가 자신이 학대한 개구리들이 일 년이 지난 후에도 고통스럽게 생명을 이어가고 있는 것을 보고 참회하여 출가를 했다고 하였다(『宋高僧傳』 卷第14 唐百濟國金山寺眞表傳). 모두 동물들도 자신과 똑같은 생명을 지닌 존재로서 생명 유지의 욕구를 지니고 고통을 느끼는 존재임을 깨닫고 나서 참회하고 출가를 하였다는 이야기이다. 그런데 흥미로운 것은 이들 승려들이 모두 사냥을 통해 생명의 경외를 경험했다는 것이다. 생활의 여러 면에서 경험할 수 있는 살생의 예 가운데서도 사냥에서의 살생의 경험이 이야기의 뼈대가 되고 있는 것이다.

신라인의 이야기 가운데 살생과 육식에 대한 가장 강렬한 경고는 구참공에게 자신의 허벅지 살을 베어 주었던 혜숙의 이야기인데, 이 역시 사냥과 관련한 이야기이다. 어지러이 사냥을 하고 그 자리에서 잡은 동물을 먹어치

14) 그러나 김대성 이야기도 동물을 살해하고 고기를 먹어서 끔찍한 현보를 받거나 지옥에 떨어지는 악과를 받는다는 전형적인 인과응보담과는 약간 차이가 있다. 이 이야기에 대해서는 뒤에 언급하겠다. 불교 신앙을 옹호하기 위해 편찬된 『삼국유사』에 불교 제일계율인 살생과 관련한 인과응보담이 들어있지 않은 이유는 잘 알 수 없다. 불교가 생활의 원리로 정착한 고려시대에 이러한 이야기가 별 흥미를 끌지 못했기 때문에 일연이 이들을 굳이 집어넣을 필요를 못 느꼈을 수도 있고, 아니면 실제 신라인들이 이러한 이야기를 별로 만들지 않았기 때문일 수도 있다. 신라인, 고려인, 누구에게 책임을 물어야 할지는 모르겠으나, 책임을 묻는다면 이 또한 흥미로운 문제가 될 것이다. 특히 신라인에게 책임을 묻는다면, ‘왜 신라인은 살생의 악행이 가져올 무서운 벌과 고통을 이야기하지 않았는가?’ 라는 질문을 할 수 있을 것이다. 그러나 현재로서는 절대적 자료의 부족이라는 한계를 넘을 수 없다. 고대 한국인의 관념세계를 이야기할 때 항상 부딪히는 문제이지만, 자료가 없다는 것이 원래 당시의 상황을 말해주는 것인지, 아니면 있었는데 散失되어 없는 것인지 판단하기가 힘들다. 특히 당대 중국이나 일본에 비해 전해지는 자료가 너무 부족한 것은 결국 후자의 문제가 아닐까 정도로 생각할 수밖에 없다. 그러나 뒤시기에 편찬된 것이기는 하나 正史와 遺事가 모두 전해지고, 특히 유사에서는 일반인의 집단적 관념을 반영한 설화들이 제법 전해지고 있으므로 현재로서는 지금 얻을 수 있는 자료가 신라인의 생각을 어느 정도 반영하고 있다고 전제하고 논의를 진행시키는 것이 최선이라 생각한다. ‘비슷한 시기의 중국이나 일본에 비해 신라에는 왜, 어떤 이야기들이 부족한가?’ 하는 근원적인 문제는 이러한 논의가 축적되고 새로운 자료의 발굴이나 해석이 진전되면서 설명될 수 있을 것이다.

우는 구참공 무리에게 혜숙은 자신의 생명을 소중히 여기는 것처럼 동물의 생명도 소중한 것인데 살생으로 자신만을 기르는 것은 잘못이라고 나무랐다(『三國遺事』 卷第4 義解第5 二惠同座). 혜숙의 이 이야기는 『법원주림』에서 사냥 행위가 저지르는 살생과 육식의 죄를 설명한 내용의 취지를 거의 그대로 인용하고 있다.¹⁵⁾ 사냥과 그 결과로 잡은 동물을 먹는 행위는 자기 생명만 사랑하여 남의 생명을 해쳐 자기 몸을 보양하는 것으로 남의 생명을 소중히 여기지 않는 행위이며, 인자함을 숭상하여 살생을 제일의 계율로 하는 부처의 가르침을 저버린 악한 행위라는 것이다.

이상의 이야기를 통해 볼 때 신라인에게 살생 행위는 무엇보다도 사냥과 연결되는 문제였던 것 같다. 이를 표로 작성하여 보면 보다 분명히 알 수 있다.

〈표 1〉 신라의 불살생 가르침과 관련한 이야기(신호와 충원공은 뒤에 언급)

인물	행위	과정	결과
자장	매를 놓아 꿩 사냥	꿩의 눈물	출가
혜통	수달 사냥	삿만 남은 수달이 새끼 품음	출가
진표	사냥과 개구리 학대	개구리들의 고통	출가
신호	사냥	사람이 동물로 보임	출가
충원공	매를 놓아 꿩 사냥	죽어가는 꿩이 새끼 품음	절 창건
김대성	곰 사냥	곰의 꾸짖음	절 창건
혜숙	구참공의 사냥 비판	자신의 살을 내놓음	구참공의 참회

원광의 세속오계에서도 이를 읽을 수 있다. 중고기 신라에서 원광은 재가자를 위한 세속오계를 가르쳤다(남동신 2001, 271). 이 가운데 불교의 생명관과 관련이 있는 것은 ‘임전무퇴(臨戰無退)’와 ‘살생유택’인데, ‘임전무퇴’는 인간 간의 살생의 문제이고, ‘살생유택’이 인간과 동물과의 관계에서의 살생의 문제이다. 원광은 ‘살생유택’을 다음과 같이 설명했다.

15) “如來設教，深向仁慈，禁戒之科，殺害爲重。衆生貪濁愛戀己身，刑害他命保養自軀，由著滋味漁捕百端，貪彼甘肥置羅萬種。或鷹放犬冒涉山丘，擁劍提戈穿叢林藪。或垂綸河海布網江湖，香餌釣魚金丸彈鳥。遂使輕鱗殞命弱羽摧年，穴罷新胎巢無舊卵。既窮草澤命侶游歸，於是脂消鼎，肉碎枯形，識附羹中，魂依膾裏。何期己身可重彼命爲輕，遂喪彼身形養己軀命。止存口腹不顧酸傷。”(『法苑珠林』 第64卷 73 漁獵篇 述意部)

육재일(六齋日)과 봄철과 여름철에는 살생하지 않는 것이니, 이는 시기를 가리는 것[擇時]이다. 부리는 가축[使畜]을 죽여서는 안 되니, 말·소·닭·개를 말한다. 작은 동물은 죽이지 않는 것이니, 고기가 한 점도 되지 못하는 것을 말한다. 이는 대상을 가리는 것[擇物]이다. 이와 같이 하면서도 오직 그 필요한 만큼만 죽이고 많이 죽이려고 하지 말라(『三國史記』 卷第45 列傳第5 貴山).

동물의 살생은 계율을 지키는 의례일이나 동물의 번식 때를 피하고(이자량 2014, 13-14), 또 가축과 고기가 별로 없는 작은 동물은 살해하지 말라는 것이다. 원광은 ‘사축(使畜)’은 살해하지 말라 하고 그것은 말, 소, 닭, 개라고 하였다. 이들 동물은 모두 일찍부터 인류가 가축화한 것으로 사역에 이용되고 축산물을 제공하는 것들이다.¹⁶⁾ 가축을 살해하지 말라는 것은 현실적인 면에서 사역의 효용성과 재산으로서의 가치가 있는 것을 함부로 없애지 말라는 것으로 이해할 수 있다.¹⁷⁾

원광이 제시한 ‘살생유택’에서 시기를 가리고 대상을 가릴 경우 가축을 제외하고 살해가 허락되는 동물은 사냥의 대상이 되는 동물을 말한다고 하겠다. ‘동물을 사냥하되 꼭 필요한 만큼만 할 것이며 때를 가려서 하고 너무 작은 것은 하지 말라!’ 이는 불교의 가르침이 아니더라도 흔히 수렵사회에서 요구되는 원칙이다. ‘살생유택’은 당시 신라인의 사냥 행태에 대한 반성과 비판에서 나온 것이라 할 수 있다.¹⁸⁾

16) 이때 ‘使畜’은 흔히 ‘부리는 동물’, 즉 사역에 이용하는 동물로 해석을 하나, 닭과 같은 경우는 여기에 잘 어울리지 않는다. 그러므로 이때 사축은 단지 ‘부리는 동물’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알과 고기와 깃털 등을 인간 생활에 제공하는 가금류 등까지 모두 포함한 동물, 즉 넓은 의미의 ‘가축, domestic animal’로 해석하는 것이 좋겠다.

17) 농경사회에서 사역의 효용 가치가 큰 소나 말은 함부로 살해하지 못하게 사회적으로 금지된 경우가 많았으며, 사냥하여 잡은 동물은 공동의 재산이었던 수렵시대와 달리 가축은 개인이 소유하고 상속할 수 있는 재산이 되었다. 브라이언 페이지 [2015]2016, 96-98 참조.

18) 이 시기 생활수단으로서의 사냥이 아닌 놀이로서의 지나친 사냥을 경계하였던 것이 원광의 ‘살생유택’ 만이 아니었다. 김후직은 『老子』와 『書經』을 인용하면서 군주로서 사냥을 ‘遊娛’하는 것에 대해 간언하여 진평왕이 사냥을 끊도록 만들었다고 한다(『三國史記』 卷第45 列傳第5 金后稷). 수렵시대 사냥의 동물과 인간과의 관계에 대한 사고의 흔적은 고대 중국의 여러 문헌에서 찾을 수 있다. 『노자』와 『서경』 외에도 『禮記』 王制에서는 사냥할 때 들판을 태워 사냥하지 않고 임신한 동물과 새끼는 죽이지 않아야 한다고 했다. 『大戴禮記』에서도 동물은 때를 가려서 죽여야 한다고 하였다. 이러한 사고방식은 합리적 생산 활동을 통한 안정된 민의 생활을 보장하려는 유가의 仁義政治를 뒷받침하는 근거를 제공하기도 했다(신선혜 2016, 289).

이와 관련하여 신라인의 사냥 이야기 중 놀이삼아 사냥하는 것에 대한 비판적 이야기들이 여럿 있는 것은 흥미롭다. 혜통은 시냇가에서 ‘놀다가 [遊畵]’ 수달을 죽이는, 가벼이 수달의 목숨을 빼앗는 행동을 했지만 죽은 수달이 오히려 생명의 위대함을 보여줌으로써 혜통에게 깨달음을 주었다. 혜숙은 구참공의 사냥을 ‘종렵(縱獵)’, 즉 ‘내키는 대로 하는 사냥 또는 지나치게 열중해서 하는 사냥’(諸橋轍次 1960, 1157)이며 ‘거침없이 내달리는[縱橫馳突]’ 사냥으로 묘사하며 비판하였다. 동물의 생명을 존중하는 태도를 갖추지 못한 사냥에 대한 비판이라 볼 수 있다. ‘놀이로 하는 사냥[遊獵]’으로 표현된 김대성의 사냥 이야기에서도 이러한 분위기를 읽을 수 있다.

장성하여 사냥[遊獵]을 좋아하였다. 하루는 토함산에 올라서, 곰 한 마리를 잡고, 산 밑의 길에서 잤다. 꿈에 곰이 귀신으로 변하여, 꾸짖으며 말하길, “너는 어찌 나를 죽였는가? 이번에는 내가 너를 먹겠다.” 하였다. 대성은 두렵고 부끄러워 용서를 구하였다. 귀신이 말하길, “나를 위해 절을 창건할 수 있겠느냐?” 하였다. 대성이 맹세하여 말하길, “그렇게 하겠다.” 하였다. 곧 잠에서 깨니 땀이 이불을 적셨다. 그 뒤로는 사냥하기를 금하고, 곰을 위하여 그 곰을 잡았던 땅에 장수사를 창건하였다(『三國遺事』 卷第5 孝善第9 大城孝二世父母 神文代).

이 이야기는 김대성이 생명을 존중하지 않는 무례한 사냥으로 토함산의 또 다른 산신이었을 곰의 분노를 사고 이에 동물의 죽음을 위로하는 적절한 의례를 행함으로써 용서받았다는 이야기로 읽을 수 있겠는데, 이는 수렵민의 믿음과 의례를 떠올리게 한다.

이상에서 본 바와 같이 원광은 불교의 불살생의 원칙에 입각한 동물관을 제시하였는데, 재가자에게 우선적으로 가축을 죽이지 말 것이며 방자한 사냥을 하지 말라고 요구하였다. 사회주도층의 이러한 선언은 사람들로 하여금 가축을 포함한 동물에 대해 어떠한 태도를 취할 것인가를 생각해보게 하는 계기가 되었을 것이다. 한편 가축 살해 금지는 여러 의례 때에 행해지는 동물 희생에 대한 경계이기도 했을 것이다. 종교적 의례에서 희생으로서 살해되는 동물은 대개 가축이다(Annemarie de Waal Malefijt 1968, 213-214). 당시 신라

에서는 각종 종교적 의례에서 동물을 희생으로 또는 봉헌물로 사용했었는데, 가축을 살해하지 말라는 불교 승려의 입장은 이에 대한 반대의 입장을 표명한 것으로 볼 수 있겠다. 앞서 중국에서는 역대 천자 가운데 제일의 불교신자였던 양무제가 동물 희생의 공물을 폐지하도록 하였었다(道端良秀 1979, 257).

사냥에서의 동물 살해에 대한 문제는 제법 진지하게 고려되었던 것 같다. 사냥과 식육이 어떤 의미인지에 대해 고뇌하고 이것을 출가의 동기로 삼은 사람의 이야기가 전해지는 것이 그 증거이다. 신희거사란 이는 어머니를 봉양하기 위해 사냥하러 나섰다가 학이 떨어뜨리고 간 깃털을 눈에 대고 사람을 보았더니 사람이 모두 짐승으로 보였다고 한다. 그래서 사냥을 하지 못하고 자신의 다리살을 베어 어머니를 먹고 후에 출가를 했다는 이야기이다(『三國遺事』 卷第3 塔像第4 臺山月精寺五類聖衆). 인간과 동물이 윤회를 통해 생명을 전환하는 관계로서 동물을 살해하여 먹는 것은 곧 인간을 살해하여 먹는 것과 같기 때문에 불살생을 실천해야 한다는 불교의 생명관을 바탕으로 구성된 이야기로 이해할 수 있다. 더 나아가 살해함과 살해당함을 멈추고 생명이 생명을 포용하고 측은히 여기는 곳, 즉 불교의 생명관이 구현된 곳이 곧 불국토라는 정신을 담은 이야기도 만들어졌다. 충원공이 매사냥을 하다가 매가 쫓던 꿩이 도망간 곳을 찾아보니 피 흘리는 꿩이 새끼 두 마리를 안고 우물 속에 있었고 매도 이를 측은히 여겨 잡지 않고 있었다. 이에 감동을 한 충원공은 이 땅에 절을 세울 만하다 하여 영취사라는 절을 세웠다고 한다(『三國遺事』 卷第3 塔像第4 靈鷲寺). 죽어가는 동물이 인간과 다름없이 자식을 품고 고통 받는 존재임을 깨닫게 해주었다는 점에서 혜통의 수달 사냥 이야기와 유사하다. 이런 이야기들이 만들어지고 유포되면서 신라에서 불교의 가르침으로 불살생의 의미를 더 이해하게 되고 그것을 실천하려는 사람들이 더 늘어났을 것이다.

그렇다고 해서 신라인들이 인간과 동물을 완전히 동등한 차원의 존재로 보지 않았음은 물론이다.¹⁹⁾ ‘살생유택’을 제시했다고 하는 원광과 산신에

19) 불교에서도 인간과 동물을 완전히 동등한 차원으로 보지는 않았다. 인간은 도덕적으로 우월하기 때문에 동물보다 더 좋은 상태에 있는 존재라고 보았다(허남결 2014, 280-283). 그러나 불교는 인간과 동물이 생명의 연쇄 고리 안에 연결되어 있는 존재라는 기본적 관점을 지니고 있기

엷힌 이야기는 이를 잘 설명해준다. 원광은 삼기산신의 도움을 받아 수행을 하고 그의 권유에 의해 중국에 불법을 배우러 유학까지 다녀왔다. 이후 원광은 삼기산신을 다시 만나 그의 정체를 알고 싶어 했다. 이에 삼기산신은 자신의 정체를 드러냈는데, 그는 늙은 여우였다는 것이다(『三國遺事』卷第4 義解 第5 圓光西學). 삼기산신은 처음에는 원광보다 우월한 위치에서 원광의 수행을 돕는 존재였다. 그런데 중국 유학을 마치고 어느 정도 완성된 승려의 자질을 갖추게 된 원광은 삼기산신의 정체를 확인하고 싶어 하였다. 설화에서 정체확인 은 대상의 본질을 알게 된다는 것이다(강진욱 1992, 180). 이는 곧 위치의 역전을 말한다. 정체확인을 요구한 원광은 산신보다 우월한 위치에 있게 되었음을 표현한 것이다. 결국 산신은 늙은 여우로서의 자신의 정체를 드러내고 죽었다. 정체를 드러낸 산신의 죽음은 산신이 원광과의 관계에서 더 이상 힘을 쓸 수 없는, 그 존재 가치를 상실한 무기력한 존재가 되었음을 말한 것이다. 이는 동물로 대표되는 전통적 산신신앙과 불교의 관계에서 불교가 우월한 위치에 있게 되었음을 이야기화한 것이다. 그리고 또 한편으로는 인간과 동물이 생명의 연쇄 고리 안에 연결되어 있는 동등한 존재이기는 하지만 인간이 도덕적으로 우월하기 때문에 동물보다 더 좋은 상태에 있는 존재라는 불교의 동물관을 원광과 산신의 일화를 빌어 설명한 것이기도 하다.

이러한 생각은 앞에서 본 신희거사 이야기에서도 엿볼 수 있다. 신희거사는 사람이 동물로 보여 사냥을 하지 못하고 출가를 했는데, 이후 사람이 사람으로 보이는 장소에 이르러 자리 잡고 수행을 했다고 한다. 출가의 동기는 모든 중생이 윤회로 연결되어 있는 동등한 존재이므로 동물의 생명이 인간의 생명과 같다는 깨달음이었다. 그러나 수행의 장소로 사람이 사람으로 보이는 곳을 선택했다는 것은 성불을 위한 수행에서 인간 존재의 단계가 동물의 단계보다 훨씬 유리하다는 것을 말하고 있다.

불살생의 계율도 원칙과 이상의 문제였지 실제 생활에 엄격하게 적용될 수는 없었다. ‘살생유택’은 동물에게 자비의 태도를 보일 것을 요구하기는 하지만 결국에는 동물 살해와 육식을 제한적으로나마 인정하는 것이었

때문에, 인간과 동물은 적어도 생명의 문제에 있어서는 동등하다는 입장이다. 그러므로 인간이 동물보다 ‘더 높은 수준’에 있기는 하지만, 이것이 동물을 지배하고 착취하는 것을 정당화해 주지는 않는다고 본다(피터 하비 [2000]2010, 281-282).

다.²⁰⁾ 전쟁에서 벌어지는 인간과 인간 사이에서의 살생도 인정하는 ‘임전무퇴’와 함께 생각해 보면 원광은 불살생의 계율이 생활 속에서 원칙대로 지켜지는 것은 어렵다고 생각했던 것이다.

자비의 종교인 불교는 살생에 대한 대원칙을 분명히 하고는 있지만 살생이 이루어질 수밖에 없는 현실의 문제와 갈등하고 타협하지 않을 수 없었다. 여러 경전과 해설서에서 중생을 위해서는 부득이 악인을 죽일 수밖에 없다는 자비살생을 말하고 있고, 또 불법을 수호하기 위해서는 무기를 들어도 된다고 하였다(피터 하비 [2000]2010, 255-260; 松本眞輔, 2002; 조수동 2015). 원광 이후 원효를 비롯한 신라 승려들도 중생을 이롭게 하는 자비살생은 오히려 복을 짓는 일이라고 하여 살생을 인정하고 있다(최원식 1994; 정병삼 1998, 397; 윤종갑 2004). 후삼국시대의 전쟁기에 살생의 악보를 두려워한 왕건에게 이엄은 죄지은 자들을 죽이는 것은 죄가 되지 않는다고 안심시켰다(『廣照寺眞澈大師碑』). 자비를 근거로 살생을 정당화하고 전쟁이나 형벌 집행 등 국가의 폭력을 합리화해 온 것이 현실의 불교 교단이 취해온 태도였다(블라디미르 티호노프, 2000). 호법을 위한 살생의 허용은 더 나아가 승려들의 육식을 감추고 옹호하는 논리가 되기도 했다. 『일본명이기』에는 고승이 수도를 하다 기력이 없어 제자에게 물고기를 구해 달라 하고 이를 먹었는데, 이를 보던 단월이 육식을 하는 건가 의심했으나 물고기의 몸이 『법화경』으로 변하는 것을 보고 의심하지 않고 고승을 공양했다는 이야기가 전한다. 이 이야기에 대해 편찬자는 불법을 위한다면 물고기나 육고기를 먹어도 죄가 되지 않는다고 설명하였다(『日本靈異記』 下卷 6話 禪師將食魚化作法華經覆俗誦緣). 『삼국유사』에 혜공과 원효가 시냇가에서 물고기와 새우를 잡아먹었다는 이야기가 있는데(『三國遺事』 卷第4 義解第5 二惠同塵), 이야기의 행위자와 전달자 모두 승려의 살생과 식육에 대해 의문을 제기하지 않고 있다. 일본의 영험담처럼 호법을 위한 고승의 식육은 문제가 되지 않는다는 인식이 있었기 때문이었다.

그러나 불교의 가르침이 모든 생명에 대한 자비와 불살생을 첫 번째로

20) ‘살생유택’은 세속인에게 최대한 불살생을 실천하라는 가르침을 전한 것으로 불살생의 계율을 분명히 한 것이라고 적극적으로 해석하기도 한다(이자랑 2014, 11-15). 그러나 ‘임전무퇴’와 함께 생각해 보면, 원광의 ‘살생유택’은 기존의 해석과 같이 세속의 재가자에게는 살생이 허용되나 다만 가려서 하라는 뜻으로 소극적으로 해석하는 것이 더 타당할 것 같다(신종원 1998, 98-99).

한다는 것은 분명하며, 공식적으로 그 원칙을 버린 적은 없었다. 동물을 살해하지 않고 먹지 않는 것은 불교에서 말하는 제일가는 선한 행위의 실천으로 권장되었다. 그래서 신라인은 동물을 살해하고 그 고기를 먹는 것은 악업이고 통렬하게 이를 참회하는 과정을 거친 사람들은 출가로의 깨달음을 얻는다고 생각했다. 그것이 혜숙, 혜통, 자장, 진표, 신희의 출가 동기가 이야기로 꾸며졌던 것이다. 이렇게 불교의 생명관은 사람들로 하여금 동물의 살생과 식육을 반성하고 참회하도록 하였다.²¹⁾ 불교의 자비와 불살생의 가르침은 신라인의 동물관과 생명윤리에 영향을 준 것임에 틀림없다.

V. 맺음말

수렵채집시대 이래 오랫동안 동물은 인간의 중요한 파트너였다. 인간은 동물이 세계를 구성하는 동등한 존재라고 여겼고 그래서 인간의 세계 인식에서 동물은 중요한 상징 질서의 한 축을 담당했다. 신라인들도 마찬가지였다. 그들은 자신들의 세계에 동물을 적극 참여시켜 자신들의 욕망과 꿈을 표현하였다. 또 한편으로 동물은 인간과 생명을 교환하는, 사실은 인간에게 자신의 생명을 주어 인간이 생명을 유지하도록 하는 존재이기도 했다. 그래서 동물은 살해당하지만 존중되었다. 신라인들도 수렵시대의 오랜 동물관을 간직하고 있었다.

그러나 농업과 가축 사육이 진전되고 동물을 이용하는 방식이 다양해지면서 동물에 대한 인식도 달라졌다. 가축 사육의 진전은 동물을 재산 가치로 보게 했고, 우경의 확산은 동물을 긴요한 노동력으로 취급하도록 했고, 사냥 기술의 발전은 마구잡이식의 동물 살해를 가능하게 하였다. 이러한 관계에서는 동물의 생명과 고통은 고려의 대상이 되지 못했고 동물은 인간의 풍요로운 생활을 위해 이용할 자원으로 여겨졌다.

21) 『日本靈異記』中卷 序에서 편찬자 景戒는 일본에서 불교의 흥포와 정립이 동물과 식물에까지 자비에 입각한 생명윤리를 확장시켰다고 분명히 인식하고 있었다. “自欽明天皇也後, 敬三寶信正教. 然或皇臣燒寺流佛像, 或皇臣建寺弘佛法. 之中勝寶應真聖武大上天皇, 尤造大佛, 長紹法種, 剃鬚髮, 著袈裟, 受戒修善, 以正治民, 慈及動植.”

그런데 모든 살아있는 것들의 생명을 중시하라고 가르치는 불교가 들어와 실생활에서 사냥되고 사역되는 동물들의 생명과 고통을 인간의 것처럼 다루라고 하였다. 불교는 모든 유정적 존재가 영혼을 가지고 있고 생명의 욕구와 고통을 느끼며 윤회를 통해 그 존재들이 서로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동물을 죽이고 먹어서는 안 된다고 가르쳤다. 동물을 학대하거나 죽이고 먹으면 악보를 받는다는 인과응보담은 이러한 가르침을 일반인에게 ‘지금, 여기에서’ 일어날 수 있는 생생한 이야기로 전달하였다.

신라에서 불살생계와 관련한 이야기는 주로 사냥에서 동물을 살해한 경험으로 참회하고 깨달음을 얻어 출가를 했다는 승려들에 관한 것이다. 신라인이 불살생계를 접했을 때 문제로 삼았던 것이 사냥에서의 동물 살해와 관련한 것이었기 때문에 이러한 이야기들이 많이 형성된 것이 아닌가 싶다. 사실 『삼국사기』에 의하면 사냥 관련 기록은 신라보다 고구려와 백제가 훨씬 많다. 신라사회에서 사냥의 비중이 고구려나 백제에 비해 적었기 때문인지 모른다. 그런데도 불교 수용 이후 사냥에서의 동물 살해가 불살생계와 관련하여 문제가 되었던 것은 가장 극적이며 폭력적인 동물 살해가 사냥의 범주에서 일어나는 것이었기 때문이 아닐까 싶다. 원광은 세속오계 가운데 인간과 동물 사이에서 벌어지는 살생의 문제를 ‘살생유택’이라 하여 동물 살해는 시기와 대상을 가려서 신중하게 하라고 가르쳤다. 놀이로 행한 사냥은 ‘살생유택’의 가르침에 의하면 비판받아 마땅한 것이었다. 신라인의 사냥 이야기 중 놀이삼아 사냥하는 것에 대한 비판적 이야기가 여럿 있는데 이러한 가르침과 무관하지 않을 것이다.

불교는 자비행으로서 불살생을 실천할 것을 가르쳤다. 이는 신라인의 동물관에 영향을 끼쳤고 생명윤리를 확장시켰다. 그리하여 어떤 사람들은 살생을 참회하고 출가를 하는 길을 선택하고 어떤 사람들은 생활 속에서 불살생과 불식육을 실천하고자 노력하였다. 불교의 가르침이 사람들의 마음속으로 더 깊이 들어가면서 불살생과 불식육의 실천은 이상적인 인간이 되는 첫걸음으로 여겨지는 경향이 생겼다. 고승은 그 어머니들이 육식을 하지 않는 태교를 하여 태어났고 어려서부터 고승이 될 싹이 있던 사람은 고기를 싫어하였다고 하였다. 또한 재가의 불교신자들은 술과 고기를 먹지 않고 냄새나는 채소를 먹지 않는 것이 이상적인 생활태도라고 생각했다. 신라말

부터 고려시대에 걸쳐 승려와 일반인의 비문이나 묘지명에 이러한 생각들이 자주 표현되었다.

불교의 동물관은 신라인에게 동물을 대하는 태도의 기준을 다시 마련해 주었다. 동물이 두려웠기 때문에 조심하고 존중할 수밖에 없었던 수렵시대의 전통적 동물관의 기억을 되살리게도 했을 것이다. 그러나 인간이 동물을 제치고 세계의 피라미드의 우위에 올라선 다음에 형성된 불교는 인간에게 동물을 외경이 아니라 자비로 대하라고 가르쳤다. 인간과 동물은 동등한 생명체이므로 인간이 우월한 위치에 서 있는 만큼 동물을 보호해야 하는 책임도 있다는 입장이었다. 이러한 입장은 동물을 재산으로, 노동력으로, 식료품으로 취급하며 살아가야 하는 사람들에게 만족감과 죄책감을 아울러 주는 설득력이 강한 호소였을 것이다.

투 고 일 : 2019년 06월 10일
 심사종료일 : 2019년 07월 16일
 게재확정일 : 2019년 07월 24일

참고문헌

- 『三國史記』 (국사편찬위원회. 한국사데이터베이스)
『三國遺事』 (국사편찬위원회. 한국사데이터베이스)
『舊唐書』 (標點校勘 25史. 北京: 中華書局)
『新唐書』 (標點校勘 25史. 北京: 中華書局)
『日本書紀』 (日本古典文學大系 67. 東京: 岩波書店)
『法句經』 (大正新修大藏經 0210. Vol.04)
『梵網經』 (大正新修大藏經 1484. Vol.24)
『廣弘明集』 (大正新修大藏經 2122. Vol.53)
『法苑珠林』 (大正新修大藏經 2103. Vol.52)
『冥報記』 (續修四庫全書 子部 小說家類)
『金剛般若經集驗記』 (CBETA 漢文大藏經. 續藏經 第87冊. No.1629)
『釋門自鏡錄』 (大正新修大藏經 2083. Vol.51)
『宋高僧傳』 (大正新修大藏經 2061. Vol.50)
『日本靈異記』 (日本古典文學全集 6. 東京: 小學館)
『今昔物語集』 (新日本古典文學大系 35. 東京: 岩波書店)

온라인 검색 사이트: 국사편찬위원회 한국사데이터베이스, 한국금석문 종합 영상정보시스템, 한국경학자료시스템, 中央研究院 漢籍電子文獻, SAT大正新修大藏經テキストデータベース

- 강진옥. 1992. “변신설화에서의 ‘정체확인’과 그 의미.” 『진단학보』 73: 165-185.
고영섭. 2009. “불교에서는 육식을 금지하는가?-한국불교에서 계율과 육식의 마찰과 윤활.” 『불교학보』 52: 97-124.
나희라. 2000. “고대 한국의 샤머니즘적 세계관과 불교적 이상세계.” 『한국고대사연구』 20: 197-249.
나희라. 2008. “통일신라와 나말려초기 지옥관념의 전개.” 『한국문화』 43: 245-265.

- 나희라. 2017. “고대 한국의 占卜 시행과 그 의미.” 『대구사학』 126: 1-30.
- 남궁신. 2011. “불식육계(不食肉戒)의 생태학적 고찰.” 『선문화연구』 10: 109-149.
- 남동신. 2001. “元曉의 戒律思想.” 『韓國思想史學』 17: 251-282.
- 블라디미르 티호노프. 2000. “삼국, 통일신라, 고려의 僧兵史를 통해본 사명대사 의거의 의의와 인간적·종교적 비극성-한국 僧家史에서의 불살생계와 국가의 제도화된 폭력-.” 『불교연구』 17: 33-66.
- 서영대. 1992. “東濊社會의 虎神崇拜에 대하여.” 『역사민속학』 2: 62-90.
- 신선혜. 2016. “신라 성덕왕대 禁殺生 下敎의 배경과 의미.” 『한국고대사연구』 83: 267-300.
- 신종원. 1990. “6세기 初 新羅의 犧牲禮-迎日 冷水里碑와 蔚珍 鳳坪碑의 碑文을 중심으로-.” 『震檀學報』 70: 1-17.
- 신종원. 1998. 『신라 최초의 고승들』. 서울: 민속사.
- 안옥신. 2004. “업설에 나타난 불교 생명관의 한 특징: 인간과 동물의 평등.” 『哲學研究』 89: 243-266.
- 윤종갑. 2004. “한국 고대불교의 생명관-신라불교를 중심으로-.” 『韓國民族文化』 24: 175-203.
- 이자랑. 2014. “세속오계의 ‘살생유택계’와 원광의 계율관.” 『韓國思想史學』 46: 1-28.
- 이정재. 1997. 『동북아의 곰문화와 곰신화』. 서울: 민속원.
- 이준정. 2012. “한반도 선사·고대 동물(動物) 사육(飼育)의 역사와 그 의미.” 『한국고고학전국대회발표요지문』 36: 71-89.
- 이택동. 2013. “한국 古典에 투영된 동물의 表象.” 『시학과 언어학』 24: 139-162.
- 임재해. 2000. “설화 자료에 의한 역사연구의 방법 모색.” 『설화와 역사』. 서울: 집문당.
- 장석만. 2014. “종교와 동물, 그 연결점의 자리.” 『종교와 동물 그리고 윤리적 성찰』. 서울: 모시는사람들. 15-38.
- 장윤정. 2013. “古代 동북아시아 동물 매장행위에 관한 연구-우리나라와 중국 내몽고지역을 중심으로-.” 『石堂論叢』 56: 171-202.

- 정병삼. 1998. “불교철학의 확립.” 『한국사』 9 통일신라. 서울: 국사편찬위원회.
- 조수동. 2015. “집단적 죽임에 대한 종교적 이해-불교적 입장-.” 『철학논총』 79: 483-502.
- 최원식. 1994. “원효의 보살계(菩薩戒) 인식경향과 그 특성.” 『동국사학』 28: 1-34.
- 허남걸. 2014 “서양윤리의 동물권리 논의와 불교생명윤리의 입장- ‘동물개체의 도덕적 권리’를 중심으로.” 『종교와 동물 그리고 윤리적 성찰』. 서울: 모시는사람들. 253-290.
- 池上良正(Ikegami, Yoshimasa). 2013. 『死者の救済史-供養と憑依の宗教學』. 東京: 角川書店.
- 石田瑞麿(Ishida, Mizumaro). 1989. 『日本人と地獄』. 東京: 講談社.
- 中澤新一(Nakazawa, Shin'ichi), [1950]2003. 『熊から王へ』. 東京: 講談社. 『곰에서 왕으로-국가, 그리고 야만의 탄생』 김옥희(역). 서울: 동아시아.
- 松本眞輔(Matsumoto, Shisuke). 2002. “불교와 살생의 관계-聖德太子에 관련된 一殺多生 理論의 系譜-.” 『日本學研究』 11: 103-126.
- 道端良秀(Michibata, Ryoshu). 1979. 『中國佛教思想史の研究』. 京都: 平樂寺書店.
- 諸橋鞠次(Morohashi, Tetsuji). 1960. 『大漢和辭典』 卷8. 東京: 大修館書店.
- Bekoff, Marc. [2010]2011. *The animal manifesto : six reasons for expanding our compassion footprint*. Novato, Calif: New World Library. 『동물 권리 선언』, 윤성호(역). 서울: 미래의 창.
- DeMello, Margo. [2012]2018. *Animals and Society: an Introduction to Human-Animal studies*. New York: Columbia University Press. 『동물은 인간에게 무엇인가』, 천명선 · 조중현(dur). 서울: 공존.
- Fagan, Brian. [2015]2016. *The Intimate Bond: how animals shaped human history*. New York · London: Bloomsbury Press. 『위대한 공존-승배에서 학살까지, 역사를 움직인 여덟 동물』, 김정은(역). 서울: 반니.
- Harva, Uno. [1938]2014. *Die religiösen Vorstellungen der altaischen Völker* 『샤머니즘의 종교적 표현』, 김진(역). 서울: 민음사.

- 니즘의 세계-알타이 민족들의 종교적 표상』, 박재양(역). 서울: 보고사.
- Harvey, Peter. [2000]2010. *An Introduction to Buddhist Ethics-Foundations, Values and Issues*. Cambridge: Cambridge University Press. 『불교윤리학 입문-태도, 가치와 쟁점』, 허남경(역). 서울: 씨아이알.
- Paproth, Hans-Joachim. 1976[2007]. *Studien über das Bärenzeremoniell*. Uppsala. 『통구스족의 곰 의례』, 강정원(역). 서울: 국립민속박물관.
- Pastoureau, Michel. [2007]2014. *(L')ours:histoire d'un roi déchu*(Editions du Seuil. Parie: Seuil. 『곰, 몰락한 왕의 역사』, 주나미(역). 인천: 오롯.
- Singer, Peter. [1975]2012. *Animal liberation : the definitive classic of the animal movement*. New York: Harper Perennial. 『동물해방』, 김성한(역). 고양: 연암서가.
- Waal Malefijt, Annemarie de. 1968. *Religion and Culture-an introduction to anthropology of religion*. New York: The Macmillan Company.

■ Abstract

Silla People's View of Animals and the Commandments of Nonkilling

Hee La Na*

Animals have been important human companions since the hunting and gathering age. Humans used to consider an animal an equal entity cohabiting the world. However, as agriculture and livestock breeding progressed, the humans' perception of animals changed. It became acceptable to exploit and kill animals for the sake of human well-being and convenience. Animal life and suffering was not given any thought.

Later, Buddhism, which taught to cherish all living things, entered Silla society and propagated that the life and suffering of animals should be treated on par with that of human beings. Buddhism explained that all living things have souls, feel desire and pain, and are connected to each other through reincarnation; hence, humans should not kill and eat animals. The stories of misfortune befalling on those who abused, killed, or ate animals clearly conveyed this teaching to the general public.

The stories of the commandments of non-killing in Silla are about monks who took that path to repent their hunting activities. Silla people seemed to think that hunting was the most dramatic and violent way to kill animals. Wongwang[圓光] taught that, when it came to killing animals, it was important to carefully select the animal to be killed and decide on the time to do so. This teaching-promoting hunting as a play was worthy of criticism. The stories that

* Professor, Department of Liberal Arts, Gyeongnam National University of Science and Technology.
E-mail: mythna@gntech.ac.kr

criticize hunting as a play among the Silla people's hunting stories seem to be related to this teachings. Buddhism affected the attitude of the Silla people toward animals and expanded their bioethics. So, some people chose to take up monkhood to repent their killings, while others, without leaving their home, tried not to kill animals or eat meat. Thus, non-killing and not eating meat was regarded as the first step to becoming an ideal human being.

Key Words : view on animal, killing, hunting, story of retribution, Wongwang[圓光], commandments of nonkilling